

부끄러워 할 것을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부끄러워 많은 걸 부끄러워 하면 살아 선 그릇된 소견에 매이고 죽어선 지옥의 악과 (惡果) 받는다. (法句經·지옥품347절)

본사: 서울대학교 동대신문사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 (2267-8577)
FAX: (02) 279-1270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 (2241-4132)
인쇄인 김영표

제 1037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다-10
1965.10.13 제 3호우원번호(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89년(단기4322년) 12월6일 (수요일) [1]

12대 총장에 교수 6명 대거 입후보

오는 6·7일 경주·서울서 각각 홍보활동

추 총장 재출마 싸고 거센 논란

총회의 '총장 승려로' 결정에 총학반발

제12대 총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2·3·7) 지난 23일 구성된 선관위(위원장=徐載範·경향신문)는 지난 1일 오후 5시까지 6명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 자격심사를 거쳐 기호 추첨해 기호 1번인 이종우(신학) 기호 2번인 이종우(경제학) 기호 3번인 이종우(농업경제학) 기호 4번인 이종우(영문학) 기호 5번인 이종우(법학) 기호 6번인 이종우(정치외교학) 교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오는 6·7일 오후 5시 양일간 서울·경주 캠퍼스에서 각각 홍보활동을 주관하며 오는 10일 총장추천회를 위한 전체교수비상총회를 교수회에 일임하게 된다. 지난 4일 교수·학생·직원 3주체간 합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이번 선거제도는 홍보활동은 서울·경주 캠퍼스에서 1회씩 실시하며 당일 입후보자는 각 10분씩 소견발표를 해야 하고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교수·학생·직원대표 각 3인씩 단체별 1시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단 질의방법은 각단체에 일임) 또 총회당일 있을 의 건제 및 수렴은 각 단체별로 홍보활동 결과문을 건설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날 후보자 지지 및 총장추천에 관한 각 자 단체의 견해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제 중요한 것이 총장추천후 재단과의 유기적 결합"이라면서 "민주총장운동과 재단혁신의 적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조계종은 동국학인사대 수습특별위원회보고 등을 주요 안건으로 지난 25일 총무원(1총회의안)에서 98차 중앙총회를 열고 '동대총장은 조계종 재직 승려여야 한다'고 결의함으로써 제12대 총장추천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돌입한 교수회의 '총장추천추진안'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이날 총학총회 결의에 유감을 표시하고 "민주총장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총장추천후 재단과의 유기적 결합"이라면서 "민주총장운동과 재단혁신의 적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조계종은 동국학인사대 수습특별위원회보고 등을 주요 안건으로 지난 25일 총무원(1총회의안)에서 98차 중앙총회를 열고 '동대총장은 조계종 재직 승려여야 한다'고 결의함으로써 제12대 총장추천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돌입한 교수회의 '총장추천추진안'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이날 총학총회 결의에 유감을 표시하고 "민주총장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총장추천후 재단과의 유기적 결합"이라면서 "민주총장운동과 재단혁신의 적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조계종은 동국학인사대 수습특별위원회보고 등을 주요 안건으로 지난 25일 총무원(1총회의안)에서 98차 중앙총회를 열고 '동대총장은 조계종 재직 승려여야 한다'고 결의함으로써 제12대 총장추천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돌입한 교수회의 '총장추천추진안'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신입생 경쟁률 6대 1

전·후기 분할 모집 등으로 상승



신입생 원서접수가 지난 24일 마감돼 5·9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수험생들은 본관앞에 설치된 컴퓨터의 지원 현장을 주의깊게 살폈다.

연극영화과 27대 1로 최고

오는 15일에 학력고사 치뤄

본교 90학년도 신입생모집입학시험 접수결과 총 모집인원 3천1백24명에 1만8천4백76명이 지원해 5.91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무처에 따르면 지난 24일 마감된 입학원서 접수결과 △인문계 1천9백33명 모집에 1만3천44명이 지원, 6.73대1 △자연계 1천16명 모집에 3천7백55명이 지원, 3.65대1 △예체능계 1백70명 모집에 1천7백27명이 지원해 10.1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캠퍼스별 접수상황을 보면 서울캠퍼스의 평균경쟁률은 5.24대1로 연극영화과가 27.03대1로 지난해에 이어 최고경쟁률을, 무역학과(야간강좌) 17.81대1, 회계학과(야간강좌) 11.9대1의 순이며, 전자산업과는 2.01대1로 최저경쟁률을 나타냈다.

경주 부총장 19일 선거

교수회 결정 비밀투표로 2인 선출

경주교수대의원은 지난 29일 오후 3시 이번 총장선거와 관련된 부총장선거도 함께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다음 주경주교수회에서 1인씩 추천받아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총학총회 결의에 유감을 표시

이날 총학총회 결의에 유감을 표시하고 "민주총장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총장추천후 재단과의 유기적 결합"이라면서 "민주총장운동과 재단혁신의 적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조계종은 동국학인사대 수습특별위원회보고 등을 주요 안건으로 지난 25일 총무원(1총회의안)에서 98차 중앙총회를 열고 '동대총장은 조계종 재직 승려여야 한다'고 결의함으로써 제12대 총장추천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돌입한 교수회의 '총장추천추진안'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변수

한 나라의 군인들이 다른 나라를 점령해 있을 경우, 우리는 그들을 '占領軍'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군사적인 면에서만 나라와 나라간에 占領軍 現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 종교적인 면, 문화적인 면에서도 그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해방 전에 일본의 점령군적 문화에 증독되어야 했고, 해방 이후에는 미국의 점령군적 문화에 계속 마취되어 있어왔다.

교수동정

- 宋錫球(철학) = 오는 7일 한국정신문화원 세미나에서 '東洋哲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예정.
- 姜泰澈(물리학) = 오는 21일 부터 90년 1월31일까지 UCLA 전자공학과, K.L. Wong 교수와 공동학술연구를 위해 渡米예정.
- 韓炳熙(법학) = 지난 12월 2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기독교학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
- 鄭明勳(미술학) = 오는 90년 1월15일부터 2월20일까지 학술조사 渡日.

막힌 귀를 뚫어주는 영어회화교재

Spectrum A Communicative Course in English
중급 수준의 생동하는 생활영어...
New Horizons in English
간단·명쾌한 문법이론의 영어회화...
New English Course
문법과 회화의 연속교재로 인기!
Side by Side 文法式 영어회화코스
Side by Side 2/E
문법과 회화의 연속교재로 인기!
Express Ways
영어회화의 王道를 일깨워 줄 책!
AKL American (Kermit) Lessons
TOEIC TOEFL
WIN THE TOEIC BATTLE
시사 TOEFL
TOEIC반독판
시사 TOEIC 카세트
시사 TOEIC 강화판

정말 별난 英語책!

Good Morning SONYA **새내기**
KBS 2TV를 통해 인기 장편 드라마 방영된 바 있는 아점영어회화 프로그램 "Good Morning, Sonya" 100의 분을 KBS 사인타의 관계계약에 의해 책으로 편집한 영어회화교재
교실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英語
나의 영어실력은? TEST YOUR ENGLISH TOEFL·TOEIC은 물론 각종 시험에 대비한 中英語問題集
미국 英語 이래서 재미있다
젊은이들의 미국식 영어 You Know What?

지성적이고 풍요로운 정신생활을 위한 ST Books

고르비초프 **페레스트로이카**
일본이 세계경제를 삼키고 있다
왜 美國은 日本에 추월당했나?
한국은 日本을 앞지러갈 것인가?
SONY 스토리
등소평 傳記
격변하는 新中國
나의 中國유학생활
중공기원
이리코카 秘話
에먼둔산
클라리의 반지
죽음보다 더한 失戀
죽음을 삼킨 땅
생과 死
한국의 경제발전

일본에서 발간 한달만에 18만부가 팔린 초강력 베스트셀러

P.F. 드러커著 THE NEW REALITIES

새로운 현실

이미 시작된 21세기! **절대화점적! 결재와 비즈니스, 사회 및 세계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드러커는 이미 시작된 21세기의 진정한 드라마로 「라시아 제국, 이 붕괴할 때가 왔고 단언하며, 거센 대변의 파도속에서 겪어야 할 새로운 현실을 함께 즐기라고 한다.

창조적 주창 정부나 세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책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을지 몰라도 「새로운 현실」은 구입할 것을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창조적인 주창으로 이끈다. - FORTUNE誌 -

드러커는 구조적 상가이며, 현재 그는 사람들이 제재의 정적능력을 벗어날 수 있도록, 모두를 지향하며 또한 실용적으로써 있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고도로 고무적인 견해이다. - Bill Barnhart, Chicago Tribune -

미래를 통찰하는 생철한 눈 그의 통찰이 필요한 책이다. 우선 읽어야 할 책이다. 매우 심오하고 진정한 테마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읽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 독자들과 같은 사색의 바다 속으로 힘차게 날아가는 힘을 갖고 있는 책이다. - 日本經濟新聞 -

중부한 통찰력 이 책의 출판장은 말 비즈니스 사회와 지식 사회의 도래이다. 드러커는 조직과 Management라는 수업을 구사하여 정적에서 유래하는 광범한 영역에 참가하고 있는 새로운 현실을 광범하게 조사해 내는 데 성공하였다. 중부한 통찰력이 넘치는 책이다. - 讀書新聞 -

P.F. DRUCKER著 金龍國譯
*총독자의 독점판매권에 의해 발행!
*국판 324면 5,500원 *전국서점에서 판매중!

社說

‘총장’ 사리사욕버린 혁신인사로 선관위와 대의원회 역할구분 모호해

제12대 총장 후보에 6명의 교수가 등록했다는 것이 우선 외의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李智冠 총장이 제임에 도전한다는 것은 예상된 충격이지만 그 파고가 높이지 못하고 있다.

우선 본교에 총장의 능력과 소신을 갖춘 교수가 6명이나 된다는 것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품어 본다. 소용돌이치는 정세변화와 본교가 처한 위기상황의 특수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올바른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으로 개교백주년을 향해邁進하는 지도자가 절실한 시기이다. 또 ‘임시부정’으로 손상된 명예를 회복해야 함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여기서 東國33성상 처음으로 전체교수가 동료교수를 총장으로 선출하는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다고 전체한다. 이상적 제도를 추구하는 과도기의 형태라고는 하나 학원의 각 주체의 참여부분이 소홀함은 민주적 제도로서 치명적 결손 사항이다. 비록 서울-경주 각 1회씩 ‘홍보활동’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는 제반 주체를 방관자의 위치로 전락케 할 요소를 범하기 쉽다. 민주적 제도의 틀을 갖추기 위해 강화-보완의어야 할 공중화가 ‘홍보활동’이라는 명칭으로 바뀐에 따라 내용 또한 왜곡된 변질을 수반하리

란 것은 예상되는 바이다.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한다. 합의를 이룬 선관위와 학생-직원간의 간담회의 진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대의원회의 역할구분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은 커다란 문제의 소자를 안고 있는 점이다. 때늦은 애기지만 학교가 제도에 대한 중추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종단측에서는 본교총장을 승려로 못박고 있어 학교-제단-종단의 관계설정이 새삼스럽게 논란을 일으키는 실정인 것이다.

제도를 하나의 그릇이라 불며 ‘12대총장선출’을 민주적으로 담아야기엔 크기가 너무 작다. 불공정하다. 더구나 사석에서의 한미디조차 비마가 되어 그의 인사공격을 이용되고 있음은 기존 타당한 정치선거종도가 조성되고 있는 마땅치 않다.

올바른 선거에 임하는 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덧붙여 각 후보자들은 교수들을 득표를 위한 상대로 대상화시켜서는 안된다. 선관위는 공정성-객관성 유지에 전력을 다하고 후보자들은 사리사욕의 근절과 개교제가를 준비하는 희망을 성취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기 위하여 혼탁한 선거를 지켜보며 당부한다.

자주-혁신을 만드는 한해 되라 8만 동국인의 손으로 동국을 살리자

개교 1백주년을 바라보며 본교는 ‘자주-혁신’의 대명제를 안고 움직이는 시점에서 순탄치 않은 많은 행보를 거듭하여 또 한해를 매듭지어야 할 위치에 와있다.

8-31부정입학사태를 필두로 총장-이사장구속, 학내 고질적인 인맥파벌의 난맥상이 속속 드러나고 주체간의 마찰과 대립으로 한해가 얼룩졌었다. 또한 자주-혁신의 노력으로 동국 자긍심 부활이라는 공동의 사명을 안고 돌파구 마련에 결집된 의지를 보인 한 학기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성한 논의속에서도 화합으로 결실을 얻지 못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다가오는 12대 총장선출의 경과가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리라는 것을 확실히 예측하게 한다.

한학기 동안 수많은 사건과 그에 따른 원인 규명과 치유책 마련의 작업속에서 무엇보다도 제단 혁신은 큰 관건이 되었다. 교육제정을 담보할 능력과 불교적 인격도야에 충실한 교육이념구현이라는 중차대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 제단의 무능은 8-31사태를 통해 이미 극명하게 드러났다.

민사소장에 다름없는 현 제단의 재정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익사업, 이를테면

부동산등을 수익사업체로 전환시키는 전문적 행정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물질적 지원과 함께 장기적 안목으로 물질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인적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취지아래 제단과 종단 그리고 학교의 올바른 상호관계가 정립되어 하며 제단의 신망을 높이고 불교의 자주적 중흥과 본교발전의 불로써 중정스님을 이사장으로 추대하자는 논의도 같은 맥락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총장선출이 남은 올해의 최대 관건일 터이니 ‘민주총장선출’과 ‘재단혁신’은 결국 하나의 고리에 연결될 수밖에 없다. 대학발전의 선진적 역량을 주도하고 투철한 개혁의지를 지닌 총장, 그리고 창의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정부의 부당한 통제속에서 부단히 땀을 날아갈 수 있는 구조의 틀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8만 동국인의 의지와 노력이 동국을 자주적으로 가꿀나도록 하리라 믿는다. 각 주체들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결연한 개혁의지로 진정한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화를 쟁취할 수 있는 틀로 자리매김하는 한해로 역사에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

사립학교법 대학자치권 침해 명문화해

요즈음 우리나라는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변혁기에 처해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혁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한 가운데 일반 지식의 의식에 내재해 있는 전통적 가치체계가 일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의 민주화 그리고 경제의 개방화와 함께 학교와 대학에서의 변혁으로서의 민주화도 교육계에서는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여져 많은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자주적 권력을 통한 새로운 제도 혹은 질서의 창조는 모든 관련된 사람들의 요청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민주화의 추세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교육계에 과거 몇년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그 중에서 다음의 두 사안을 통하여 변화의 방향을 고찰해 보고 제도적 변화로서의 범람의 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에 국립사립대학 졸업자를 교사로 우선 임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교부가 발표한 ‘국립사립대학 간에 이해관계가 엮일지’에 대한 조처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국가가 책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가 우수교원확보를 위

해서 유지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입학사 학교선택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는 한 국립사대 졸업자의 우선 채용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사립사대들의 입장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개경쟁을 통하여 유지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입학사 학교선택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는 한 국립사대 졸업자의 우선 채용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민주와 바람이 불면서 각대학에서는 교수회에 의해 총·학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안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몇개의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는 교수회에서 총장을 직접 선출하여 관계행정부서의 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그 당시 문교부에서는 국·공립대학 총·학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안을 하기도 하였으나 문교부와 대학이 각각 다른 방안을 두고 대



李 一 鎔 (중남대교수·교육행정)

립하였으나 문교부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가 승인 요청한 총장과의 대립이 생겨 결국 법정투쟁으로까지 비화된 경우도 있었다.

이상의 두가지 예에서 살펴 보았듯이 현재의 교원임용과 관련된 경우는 국립과 사립사대 졸업자들의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을 실천에 옮긴 예이며, 특혜의 총장선출과 관련된 경우는 법률의 개정없이 현 규정의 범위내에서 국립과 사립대학의 총장선출에 대한 민주적인 방식을 찾아 보려는 예로 앞으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하겠다.

교원임용문제를 둘러싸고 국립과 사립간의 갈등은 해방이후 계속 있어 왔으며 최근에는 국립과 사립사대 대학정원회까지 분리되기까지 하였으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철학인 평등과 기회균등이 지켜져야 한다. 이미 해방 직후 일본에서 폐기한 교육사관학교의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며, 헌법과 교육법의 규정에 상충되는 교육공무원법은 바뀌어야만 한다.

총장선출문제를 관련하여서 아직 도 법률개정이 국회에 제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

점을 지적과 함께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립의 경우는 설립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립의 경우보다는 문제가 적으나 사립의 경우는 법규정에 민주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구조적으로 포

함되었으며, 교수들에 의한 총장직선방식을 취한 경우든 대학구성원이 참여한 추천위원회로 구성하여 결정한 경우든 현행 교육관계법 및 사립사대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반민주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립사대교수들이 결기대회를 가진 바도 있다.

둘째, 대학총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지난 수년간 상당수의 국립대학

에서 선출할 것인가 아니면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 학생, 사무원, 동문 등이 일정비율로 참여한 상태에서 선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어느 대학의 학생의 비율이 높게 책정된 추천위원회에서 총장

을 선출했으나 문교부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가 승인 요청한 총장과의 대립이 생겨 결국 법정투쟁으로까지 비화된 경우도 있었다.

이상의 두가지 예에서 살펴 보았듯이 현재의 교원임용과 관련된 경우는 국립과 사립사대 졸업자들의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을 실천에 옮긴 예이며, 특혜의 총장선출과 관련된 경우는 법률의 개정없이 현 규정의 범위내에서 국립과 사립대학의 총장선출에 대한 민주적인 방식을 찾아 보려는 예로 앞으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하겠다.

교원임용문제를 둘러싸고 국립과 사립간의 갈등은 해방이후 계속 있어 왔으며 최근에는 국립과 사립사대 대학정원회까지 분리되기까지 하였으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철학인 평등과 기회균등이 지켜져야 한다. 이미 해방 직후 일본에서 폐기한 교육사관학교의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며, 헌법과 교육법의 규정에 상충되는 교육공무원법은 바뀌어야만 한다.

총장선출문제를 관련하여서 아직 도 법률개정이 국회에 제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

점을 지적과 함께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립의 경우는 설립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립의 경우보다는 문제가 적으나 사립의 경우는 법규정에 민주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구조적으로 포

교육공무원법 더이상 존재이유 없어 ‘총장임명승인제’ 명백한 관권 남용

과 사립대학에서 논란이 있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국립대학의 총·학장은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교육공무원법 제24조). 또한 사립대학 총·학장은 학교법인 또는 경영자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

명하였으나 문교부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가 승인 요청한 총장과의 대립이 생겨 결국 법정투쟁으로까지 비화된 경우도 있었다.

이상의 두가지 예에서 살펴 보았듯이 현재의 교원임용과 관련된 경우는 국립과 사립사대 졸업자들의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을 실천에 옮긴 예이며, 특혜의 총장선출과 관련된 경우는 법률의 개정없이 현 규정의 범위내에서 국립과 사립대학의 총장선출에 대한 민주적인 방식을 찾아 보려는 예로 앞으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하겠다.

교원임용문제를 둘러싸고 국립과 사립간의 갈등은 해방이후 계속 있어 왔으며 최근에는 국립과 사립사대 대학정원회까지 분리되기까지 하였으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철학인 평등과 기회균등이 지켜져야 한다. 이미 해방 직후 일본에서 폐기한 교육사관학교의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며, 헌법과 교육법의 규정에 상충되는 교육공무원법은 바뀌어야만 한다.

총장선출문제를 관련하여서 아직 도 법률개정이 국회에 제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

점을 지적과 함께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립의 경우는 설립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립의 경우보다는 문제가 적으나 사립의 경우는 법규정에 민주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구조적으로 포

점을 지적과 함께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립의 경우는 설립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립의 경우보다는 문제가 적으나 사립의 경우는 법규정에 민주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구조적으로 포

총장후보중 지탄 대상 인물도 있어 자격요건 논의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절실

지난해, 동약의 교정은 불교를 지원한 대입수험생들로 색다른 활기를 띠고 있었다. 그들에게 동약 곳곳에 나뉘었던 ‘민주적 총장후보’ ‘재단혁신’ 등의 호소는 아마도 현재 본교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렇다. 지금 동약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놓여 있다.

당연한 ‘총장선출의 과정과 결과’ 여하에 따라 절체절명의 걸고 있는 동약이 새로이 되살아 나느냐 아니면 더욱 더 퇴락의 늪에 빠지느냐가 좌지우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교수회가 지난 비상총회에서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을 확정했다. 이 규정한 확정은 그동안 민중선출을 위해 투쟁해 왔던 학우대중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된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공중화라든지 타 주체에 의견제출권을 부여한 것은 교수회에서 일정 정도 학생

행태가 발생되지 못하도록 충분히 견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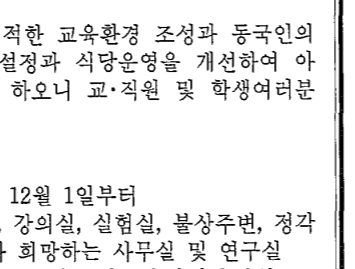
이제까지의 교수회에서 보여 준 모습을 보아서 안심하고 관망할 수만은 없는 형편으로 판단된다. 현 제도의 한계상 학생들의공적 참여를 통한 선출은 불가불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몇 차례의 ‘교수-학생-직원대표간담회’에서 합의한 각 주체의 참여보장은 우리 스스로도 지켜 내야 한다. 지금 임후 보한 총장 후보자 중에는 학내 각 주체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도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앞으로의 선거가 학원자학-학문공공을 외면한 인맥·파벌의 파행성으로 될 수 있다는 예고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명확한 논의와 관계제시에 힘입어 총장선출을 위한 후보자의 필적자격요건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제도의

한계 또한 극복할 수 있는 주체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총장은 교수뿐 아니라 학생·직원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학자투의 완수라는 측면에서 민주총장 선출을 저해하는 어떠한

東國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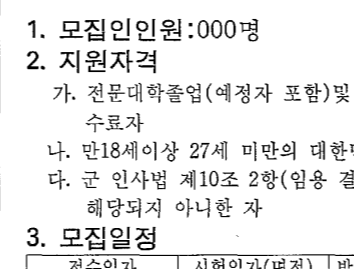
주관이 명관입니다

XX 스님이 명관입니다

반 사자

◇ 다시한번 날수 있어!

東國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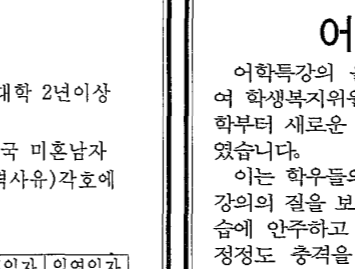
주관이 명관입니다

XX 스님이 명관입니다

반 사자

◇ 다시한번 날수 있어!

東國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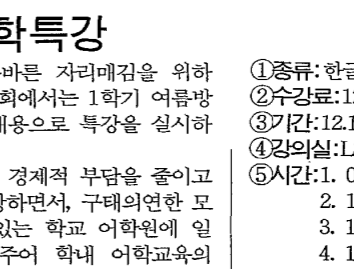
주관이 명관입니다

XX 스님이 명관입니다

반 사자

◇ 다시한번 날수 있어!

東國漫評



주관이 명관입니다

XX 스님이 명관입니다

반 사자

◇ 다시한번 날수 있어!

입찰 공고

1. 입찰명: 동국대학교 논문집(제28집)
(내용)가. 부수: 800부
나. 규격: 4×6배판
다. 면수: 800면
라. 지질: 100g/m2 미색 모조
마. 각 논문당 별책본 60부
2. 입찰일시: 1989. 12. 19(화) 11:00
3. 입찰장소: 소 회의실
4. 설명일시: 1989. 12. 19(화)
5. 서류제출마감일시: '89. 12. 18. 11:00까지
6. 제출서류: 가. 입찰신청서(본교 소경양식)1통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다. 입찰보증금(입찰액의 1/10이상) 혹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통
라. 대표자 인감 증명서 1통
마. 대표자 사용 인감계 1통
바. 등기부 등본 1통 사.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통
아. 공장 등록증 혹은 시설 증명서 1통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총무과(2213, 2214, 2215)로 문의바람
1989. 11.

동국대학교

공 고

후생복지과에서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동국인의 건강을 위해 급연구역설계와 식당운영을 개선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직원 및 학생 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1. 급연구역설계
가. 실시시기: 1989년 12월 1일부터
나. 급연구역: 도서관, 강의실, 실험실, 불상주변, 정각원, 기타 희망하는 사무실 및 연구실
다. 급연구역 표시: 출입문에 급연구역 안내판 부착
2. 식당운영개선
가. 실시기간: 1989. 12. 1~12. 31.
나. 교직원 식당
①학생출입원활: 종전의 교·직원식당 출입제한을 완화하여 12:00~13:30까지 학생출입을 제한하며 그외 시간에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②복수식당제: 식단종류에 따라 가격을 현실화하고 보조매뉴제를 실시하여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자 함.
다. 학생식당
· 자동가격제: 단점식당의 단점을 다소 보완하고 음식결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 자동가격제(500원, 700원)를 실시하여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자 함.

*공지사항
1. 급연구역내에서는 반드시 급연구역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흡연 후 담배꽂이는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3. 급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후생복지과로 연락하시며 급연구역표지를 교부하여 드립니다.
4. 12:00~13:30까지는 교·직원외의 강의 및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학생의 교·직원식당 이용을 금지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우선 1개월동안 시범실시한 후 결과를 따라 보조매뉴 채택 및 정기적인 부페식 운영 등 식당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

해군 일반하사 모집

1. 모집인원: 000명
2. 지원자격
가. 전문대학졸업(예정자 포함) 및 대학 2년이상 수료자
나. 만 18세이상 27세 미만의 대한민국 미혼남자
다. 군 인사법 제10조 2항(인상 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모집일정
접수일자 시험일자(면접) 발표일자 임명일자
89.12.11~90.1.10 90.1.20 90.3.28 90.4.4
4. 구비서류
가. 현역 복무지서1부(해군 서식)
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2부
다. 최종학력 1년급 성적증명서 2부
라. 반명함판 사진(3X4센치)3매
5. 접수장소: 진해, 동해, 포항지구 해군 포병관실 및 각 지방방위청 해군포병관실
6. 특전
가. 소정의 교육이수후 해군하사로 임용하며, 복무기간은 일반병과 동일함
나. 대학 군사교육 이수자는 해당기간 복무기간 단독해택
다. 학교 전공학과에 유사한 병과 부여
라. 예군훈련 적용인원 일반병과 동일
마. 군인 보수 규정에 의한 일반하사 급여 및 각종수당 지급
바. 학과시험 면제, 면접 및 서류전형
7. 모집 전공학과
가. 기계, 전기, 전자, 화학
나. 일반(인문, 생물, 영양, 상관계, 기타)
8. 문의처: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815-3558, 또는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해군본부

동계 특강 안내

어학특강

어학특강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1학기 여름방학부터 새로운 내용으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강의의 질을 보장하면서, 구태의연한 모습에 안주하고 있는 학교 어학현에 일정한 충격을 주어 학내 어학교육의 활성화를 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2학기중의 TOEFL특강에 이어 동계방학 기간에도 5강과 정도의 어학특강을 준비하고 있던 중, 놀라움에도 어학원에서 우리의 뜻을 받아들여 특강 강의료를 학부위의 수준으로 내리고 보다 올바른 어학현의 위상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학부위에서는 어학현의 뜻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어학특강에 관한 모든 업무를 어학현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가 마

- ①총류: 1종(16인승 이하) 2종(9인승 이하)
- ②수강료: 1종-90,000원 2종-80,000원
- ③설기장: 성남, 강남자동차 학원(강남지역)
- ④시간: 편리한 시간에 이용
- ⑤내용: · 철저한 담임제 교육 · 서클서비스 매일 학교로 운행 · 20회 실기교육

*어학 특강을 제외한 기타 다른 특강의 접수는 학생 복지 위원회(해파관 1층 구내2185)에서 받습니다.
*특강 접수 일자: 89.11.23~89.12.19일까지입니다.

타 자

- ①총류: 한글·영문
- ②수강료: 12,000원(교재포함)
- ③기간: 12.18~90년 2.9
- ④강의실: L310
- ⑤시간: 1. 09:30~10:50 2. 10:50~12:10 3. 12:40~14:00 4. 14:00~15:20 5. 15:20~16:40
- ⑥내용: *국가 공인 자격시험 응시가능(부류)
*연습지 1권의 배부
*2벌씩 타자기 1대 실기교육
*1강좌당 선착순 50명 접수

컴퓨터

- ①강의 내용(전체강의): MS-DOS BASIC DBASE III WORD-PROCESS
- ②강의 시간: 1. 09:00~10:30 2. 10:50~12:20 3. 12:40~14:10 4. 14:30~16:00 5. 16:20~17:00
- ③수강료: 30,000원
- ④기간: 89.12.18~90.2.28
- ⑤강의실: G 206(이른), G 207(실기)
- ⑥내용: *16BIT COMPUTER 1인 1대교육
*강좌당 40명 선착순 접수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총장 입후보자에게 듣는다

고등교육법

1. 입후보의 변
2. 前代의 문제점
3. 학교발전 방안
4. 종·재단과의 관계
5. 총장의 위상

○... 東國 83년 사상 처음으로 전체교수회에 의해 ...
 ○... 선출되는 이번 총장선거에는 모두 6명의 후 ...
 ○... 보가 출마했다. 본 인터뷰는 침체된 동국의 ...
 ○... 발전과 학원의 지수화를 이룩할 과제가 주 ...
 ○... 어지는 12대 총장에 입후보한 후보들을 만 ...
 ○... 나 각자의 소신을 들어보고자 마련하였다. ...
 ○... (편집자)

재임중 잘못했지만 뿌리는 애교심 병원등 장기사업 완수 기회주길

현재 본교의 총장이면서 차기총장을 겨냥하여 총장후보로 출마한 **李智冠**(선학) 후보. 그동안 재임기간의 공과에 의해 후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은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후보로는 조계종 총회의 '스님총장 추대결정'에 의해 "총회의 입장이고 의의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자신과 연관이 없음을 시사했다. 재임시 치명적 과오가 되고 있는 부정입학사건에 대해서는 "기부금 입학"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학교의 명예가 손상된 점이나 그로인해 피해를 입은 45명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학교발전을 위한 애교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①재임 4년동안 최선을 다했으나 어렵고 힘의 한계를 느낀 적도 많다. 8·31사건이후 불교계에서 불교를 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다. 불행한 사건이었던 학과에 대한 인식이 깊어진 것은 대학원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학교에 재정적 지원

기호1번
李智冠 후보



(정우석 記者)

이다. 잘한다고 했음에도 잘못된 것이 있고 잘한 것임에도 남이 비판하기도 한다. 4년간의 재임경험을 거울삼아 과실을 최대한 줄여나가고자 한다. ②공약사항중 메디컬센터등 장기사업을 완수할 것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성직사설보다는 동국인의 정신이 앞장서야 한다. 애교심으로 하나 가 될 때 가장 강행함이 창조

의 확장은 불가피하며, 특히 병원이 4개나 되기 때문에 의료부총장까지 필요로 한다. 또 그동안 서울에 부총장을 두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부총장을 둘 예정이다. 지금에 있어서는 총장의 권한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렵게, 어떠한 일을 해나가는가 그 역할을 결정해 준다고 본다. 부정입학사건으로 아직 기소 재류중인 점을 감안, "부정입학"의 원칙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다"며 애교심이 어찌 죄가 되는냐는 듯한 여유를 남겼다. 후보로는 자신의 재출마에 대해 "부처님의 뜻이고 사부대중의 자서명령이기 때문"이라고 다시 강조하며 말을 맺었다.

③생년월일: 1932년 12월 9일
 ◎학력과 경력: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출가(46년)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총회 의원 역임(65년) 본교 전임장사(75년) 본교 대학원 부(철학박사) 본교 불교대학장 역임 본교 교육대학원장 역임 문화재 관리위원 역임 총명학원 연합 회장(현재) 본교 전학과 교수(현재)

대학자체 자금으로 거액기금 조달 재단 구성에 승·속 차별 없애야

깊은 침체와 무기력의 늪에 빠져있는 현 동국의 모습을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張源宗**(경제학) 후보. 그는 동국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 입후보하였다고 출마이유를 밝혔다. "대학 자체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돈이 없는 탓으로만 돌리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라며 **張** 후보는 학교재정에 대해 경제학자다운 논리를 펼친다.

①학교발전에는 장기적 전망을 갖지 못한 채 현상유지에 급급한 현재의 모습은 사실상의 퇴보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동국중흥의 현실적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입후보했다. ②대학은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기업이다. 따라서 합리

기호2번
張源宗 후보



(이 중식 記者)

적, 능률적 경영을 통해 학교의 발전은 가능하다. 이전의 주먹구구식 행정은 무시인일한 자기만족에 빠져 거북이가 달리는 동안 낫잡을 자고있던 토끼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입학부정으로 대학의 최고 책임자를 추진하겠다. 그 제도적 장치도 교수·학생·직원의 대표가 참여하는 '東大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불교대 중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 ④재단의 인적구성은 승·속의 구별없이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들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에 대한 이해와 간섭은 절대로 배제되어야 한다. ⑤총장은 학자로서의 학문적

소양과 행정가로서의 경영능력을 겸비한 인물이어야 한다. 학원이 학문·사상의 보루로서 올바르게 자리잡기 위해 총장은 확고한 민주주의를 갖고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의 최고 책임자로서 총장은 "단순히 권위의 상징이거나 인맥파벌의 우두머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발전을 위한 부지런한 '일꾼'으로서 필요하다"고 총장론을 펼치는 **張** 후보는 "누가 총장이 되느냐보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의 판단은 과당적 이해관계가 아닌 교수 개개인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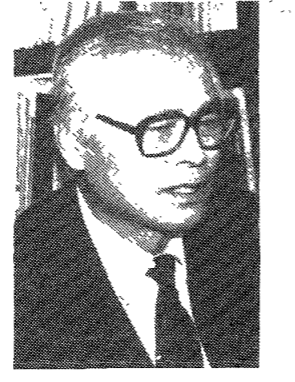
⑥생년월일: 1926년 5월 25일
 ◎학력과 경력: 동국대 경제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졸업(경제학박사) 미국 콜롬비아대학 방문교수(81년) 본교 경상대학장·경원대학 원장 역임, 경제문제연구소 소장(현재) 現예안회계제도 심의위원 한국재정학회 회장(현재)
 ◎주요저서: 재정학연습, 한국자본주의의 현실과 대응책 등 다수

총장은 각주체 의견담는 그릇 재단의 조건부 지원태도 버려야

28년간을 본교 교수로 재직해 오면서도 보직등 소위 '자리에 관심이 없는 교수로 알려졌던 **朱宗桓**(농업경제학) 후보는 이차의 첫머리에서부터 본인을 비롯하여 몇몇 후보에게 교수사회의 분열을 보인다. 비판과 함께 "학생들을 오로지 당락의 변수로 간주하며 자칫 1만 동국인을 선거의 여론형성공으로 치부한다"는 12개 단과 대학총회의 공명결의문에 대해 자신은 보직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며 자신을 소위 "자리꾼"으로 매도하는 발언에 대해 학생회의 의견을 의식한다고 격한 감정을 토로한다.

①그동안 교수·동맹회 등에서 수차례 출마를 응수받은 바 있으나 80여년 성상에 걸맞는 본교 출신의 총장이 나서주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그러한 인물이 나올 경우 적극지지하겠다는 의사표명도 했지만 결론을 얻지 못한 채 민주화를 갈망하고 포퓰러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학교를 평화리에 입학시킨다는 사명감을 안고 출마하게 되었다.

기호3번
朱宗桓 후보



(김경애 記者)

②현재의 **李** 총장은 형사상 구형을 받은 상태이므로 학교 규정에 의해 '형사상기소당한 사람은 직위해제한다'는 조항에 일차적으로 걸리었다. 또한 부정입학사건 자체가 사회인인 **李** 총장을 보인다는 비판과 함께 "학생들을 오로지 당락의 변수로 간주하며 자칫 1만 동국인을 선거의 여론형성공으로 치부한다"는 12개 단과 대학총회의 공명결의문에 대해 자신은 보직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며 자신을 소위 "자리꾼"으로 매도하는 발언에 대해 학생회의 의견을 의식한다고 격한 감정을 토로한다. ③동국의 각 주체간에 합의의 합리화를 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동국발전을 위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재단과 보다 밀접한 협조관계를 통한 지원요청은 물론 본인

⑤재단과 재단·교수·직원·학생 등 동국의 각 주체들의 민족적인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어야 하며 특히 대학의 주인은 교수와 학생이므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⑥생년월일: 1929년 7월 10일
 ◎학력과 경력: 서울대 예과 수료 일반 동경대학 경제과 재 본교 대학원 경제학과 재(경제학박사) 한국경제학회 이사 역임 한국농업경제학회 이사(현)
 ◎주요저서: 동경경제학 연구 경제개론 한국자본주의론의 다수

자긍심 회복과 이미지 쇄신에 주력 새로운 인물 추대는 시대적 요청

"재임없는, 학교발전은 역시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총장은 학교의 재원을 마련하는 노력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재단에만 의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李** 후보는 재임기간에 불구하고 주위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출마하게 됐다는 이창배(영문학) 후보. 현재 대학원장이라는 보직을 맡고 있기도 한 그는 재임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도 총장의 큰 임무라는 색다른 총장론을 펼친다.

①학교가 다시 태어나야 할 국면이 되어있다는 인식에 많은 교수들의 권유와 추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임기간 1시간에 불과한 임기를 넘겨주길 바란다. 미숙한 점이 많지만 일단 출마한 이상 선거에 열심히 임하겠다. ②현재 불교는 83년 역사에 맞지 않게 여러면에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최근의 기부금 입학사건등 일련의 사태를 붙여 총장은 새로운 인물이어야 한다. ③우선 특화된 재단교과사업과 국내의 기업가를 중심으로

기호4번
李昌培 후보



(지동철 記者)

④학교는 재단에 예측되어서도 안되고 총단에 예측되지 않아야 한다. 총장이 파급한 행정력을 펼칠 수 있도록 재단과 협력해 주길 바란다. ⑤총장은 배의 선장과 같다. 선장이 배를 안전하게 운항하는 것이 의무이듯이 총장은 대학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특히 본교의 경우 건학 이념 구현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대학의 권위와 명성을 지키고 나아가 교세를 신장해 '동국'이 발전하도록 이끌 수 있는 인물로서 공직으로서 사회 및 국가에 이바지할 여건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⑤우리대학 같은 경우 총장은 학문적 업적도 중요하지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자적 능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임시문제'같은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명문사학의 자리를 되찾으려면 학교행정의 최고 운영자로서 재원을 확보하고 경영정태한 인사행정,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총장을 중심으로 모여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인품 또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⑥생년월일: 1924년 11월 26일
 ◎학력과 경력: 한국 영문학과 졸업 미네소타대학 대학원 수료 동국대학교 대학원 영문과 후(문학박사) 위스콘신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에서 객원교수 역임 본교 사범대학장·법리대학장·교무처장 역임 대학원장(현재) 한국 영어영문학회 회장 역임 한국 현대 영미시 학회 회장(현재)
 ◎주요저서: T.S. 엘리엇 전집 등 다수

학자투 합의사항 추진구체화 할터 학풍조성위해 행정체계 종합 점검

"총회원들이 총명학교인 본교에 대해 걱정하고 토론했다는 자유이전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임박하는데 비해 그 걱정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韓相範**(법학) 후보는 지난 25일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본교 총장은 승려이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평한다.

①목표는 학내민주화를 통한 대학 내실화가 핵심이 되고 있다. 각 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을 일신하겠다는 뜻과 나름대로의 경륜으로써 그리고 이 학교에서 가장 빛을 많이 낸 사람으로서 몸바쳐 봉사할 비장한 각오이다. ②총장은 본래 설립정신에 입각, 학교를 관리하는 재단에 재한직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중단-재단 그 누구도 정상적 기능으로는 구제사할 지지를 할 수 없다. ③우수우봉·역량있는 학자·학생 유지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행정체계의 종합점검이 필요하다. 현재는 정상적 위상에 걸맞지 않고 예견된 상

기호5번
韓相範 후보



(김 일 記者)

황이기에 대학 본래 목적에 맞게 세출해야 한다. 또 물적 혁신방안으로 막대한 재원을 이끌어온다는 목표를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기존의 재단이 관리하는 재산등 재변경을 올 바로 활용하는 종합계획수립은

실한 뒤 합의사항 전체를 일거에 이룩하기엔 벅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이해 폭을 좁혀야 함도 빠뜨리지 않고 피력한다. 한국대학교수들을 가운데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지성과 학식을 겸비했다고 평가받는 **韓** 후보의 "인기 채우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려는 비장한 각오"란 말이 무게 있는 여운을 남긴다.

④생년월일: 1936년 9월 26일
 ◎학력과 경력: 본교 법학과 및 대학원후(법학박사) 본교 법학과 전임교수(64년~현재) 한양대·건대·이화여대·정신문화원 강사역임, 헌법학회 이사 한국비교법 학회 회장 한겨레 신문 장간 발간인 한국학교교수회 사무처장 본교 학과처장, 법정대학장 역임
 ◎주요저서: 헌법, 사회과학개론, 인간의 권리, 현대불교와 사회과학 다수

후원회 발족으로 연간10억 마련 교원과 학습권 상호조화 이뤄야

"모든 문제를 교수의 교권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은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는 범위에서 상충되는 부분은 서로 화합하며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申國柱**(정치외교학) 후보는 학자투에 있어 학생의 학사행정참여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①학내의 여러가지 모순의 시장,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학사행정의 운영과 더불어 지금까지 이룩되어있던 어학교육의 상시상설화로 학문의 국제화 추구에 맞춰 학습권을 보장하고, 그렇게 길러진 학생들의 역량이 사회에서 발휘될 수 있게 학생과에서 담당했던 취업 업무를 취업처로 승격, 취업의 길을 넓혀주겠다"며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②파커 한국 사학의 명문이었던 우리대학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새롭게 명문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신념과 각오로써 출마하게 됐다. ③지금까지 우리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부터 운영이 되

기호6번
申國柱 후보



(유권준 記者)

④사립대의 경우 재단이 학교재정에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함과 동시에 학교행정은 총장의 관할하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규정이 있으면서도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시행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쌓여온 재단, 총단에 대한 불신을 불교이념하에 공개적 재정부유로 극복해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⑤우리대학 같은 경우 총장은 학문적 업적도 중요하지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자적 능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임시문제'같은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명문사학의 자리를 되찾으려면 학교행정의 최고 운영자로서 재원을 확보하고 경영정태한 인사행정,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총장을 중심으로 모여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인품 또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⑥생년월일: 1925년 11월 9일
 ◎학력과 경력: 해회전문학교 불교학과 졸업 본교 사학과 졸업(50년) 일본 법정대학 정치학과 졸업 일본 와세다대학원 정치학 연구과 후(정치학박사) 일본 법정대학원 사회과학 연구과 후 본교 행정대학원장, 법정대학장 역임 정치외교사학회 회장 역임
 ◎주요저서: 근대 조선의교사 한국 근대 정치외교사 등 다수

사회주의의 재구성으로 평가돼

변모하는 동구권 어디로 가나

헝가리를 선두주자로 하여 최근 동구공산주의국가에서는 정치적·경제적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부 제도권 안에서는 이들 국가가 마치 자본주의의 길을 걷고 있다며,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동유럽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중들의 시위는 결코 반공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왜곡해온 스탈린식 사회주의 체제의 유산에 대한 저항이며, 민주적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동구권 변모의 원인과 배경, 의미 지향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I. 들어가는 말

금세기의 마지막 10년을 앞두고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세기적인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폭력적인 혁명적 변화의 와중에 휩싸여 있다.

전쟁과 혁명으로 시작한 20세기 두 번에 걸친 세계전쟁을 치루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이념과 핵무기나 무력으로 대립·분열을 하더니, 마침내 21세기의 진입을 앞두고 그 세계사의 부조리를 뒤로 한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려는 신질서구도의 움직임 앞에 세계는 지금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구촌의 관심은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에 쏠리고,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변혁의 물결은 그 움직임이 너무나도 급속하게 전개되며 앞으로의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동독의 민주화와 개혁의 물결이 뒤이어 프라하에서는 연일 1968년 소련을 비롯한 바르샤바 동맹군의 탱크 무함하게 좌절되었던 '프라하의 봄'이 다시 살아나 체코국민들은 20년 전 '프라하의 봄'을 탄압한 구스타프 후사크 대통령과 밀로사예크스 서기장 퇴진, 공산당퇴진 그리고 민주개혁을 요구, 24일에는 대통령과 서기장 정치국원 16인과 서기국 13인 당지도자 전원이 사임하였다. 20년전 민주적 선거체제와 의회제, 당에 의한 국가권력 독점체제, 경제개혁, 그리고 민족자주노선을 구축하기 위한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Socialism with a human face) 즉 사회주의 사회의 민주적 모델을 제시하고 위로부터 개혁을 시도하다 자질을 당한 알렉산드르 부비체프 당시 서기장이 민주화의 광장에 나타나 민주개혁의 필요와 '인간이 사회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동구 개혁의 성공은 형태와 관련, 동구국민들의 새로운 형태의 개혁된 사회주의 열망이 어 렵음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 라는 보증은 당장 어렵다 할지라도 이미 역행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은 분명한데, 기록 권에 얽매어 과거 질서의 노예가 된 수구적인 지도층에 동구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민주개혁만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폭 넓은 합의에 결집되어, 이미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단계로 접어들고 또 그 실행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변혁의 의지는 각 국가의 보수진을 끌러가게 하고 개혁세력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는 1968년 체코에서와 같이 어느 개별적인 한나라에서만 국한되며

고립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동구권적으로 걸쳐서 동시 다발적으로 그 파장의 상호관련 속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구의 변혁은 한편에서는 동구공산주의 사회주의주의에 가까운 사회주의



白京男 (사회과학대학교수·국제정치)

수정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은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는 유럽의 자주화 움직임을 파악한다.

II. 동구의 개혁 전과 그 배경

동구에서 대 변혁의 선봉은 지난 8월 폴란드에서 마조비에츠키 비공

을 채택하였다. 한편 동독에서는 수십만명이 이르는 서독방문 행렬이 이루어지고 강경 보수 공산체제에 개혁과 자유를 요구하는 반정부시위가 계속되어 동독 공산당은 11월9일 동독국경의 전진방향을 선언하고, 자유선언 실시, 여행규제 철폐, 경제개혁,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 및 새 언론법을 촉구하였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 독일인들은 서로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환호성에서 밤을 새웠다.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배경으로

의국가 수준의 생활과 과학 기술을 따르기가 어렵다고 진단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의 정책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에 집약되는데 그 전술로서 소련국민 모두가 공적으로 개혁운동에 앞장서면서 아래로부터 사회적 압력을 발산토록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70여년 이상에 걸친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회주의는 유연성을 상실하여 이적 그의 개혁정책에 대한 공포여부는 아무도 점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두 번 동구 국가들에게 개

성의 신념, 개성을 존중하는 그들 이상주의의 확산을 무너지게 하였다. 두 번에 걸친 전쟁의 주역은 서유럽 국가였으나 유럽의 전후문제를 처리하고 전후 국제질서를 재편성하는 1945년 2월 크리미아반도의 얄타회담에서는 유럽이 소·격하였다.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의 3거두회담에 참여한 주역이 되어 유럽의 위치는 알타정신에 굳어졌다. 얄타회담은 전후평화를 거치면서 지구의 서쪽에서는 독일의 분단선을 중심으로, 동쪽에



◇'인간중심'의 사회주의 건설을 요구하며 지난날 체코인들이 프라하 시내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한겨레신문)

인민요구수렴... '인간중심' 사회주의지향 알타체제 탈피는 유럽의 자주와 같은 맥

신당 정권의 탄생이다. 1970년대 유로코뮤니스트 정당들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을 폐기하고 모스크바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에 성공적인 효과를 가져와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을 때 국제정치학의 석학 키싱저는 유로코뮤니스트들이 집권하면 공산주의 본래의 이론과 실천으로 돌아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일당독 체제제를 수립,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한 영구집권의 가능성은 경계, 유로코뮤니즘을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불신화하였는데 이번에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비공산당 정권이 탄생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이다. 10월에 헝가리 집권 노동당은 스스로 공산당을 해체하고, '헝가리사회당'을 창설하면서 다당제, 자유선거, 시장경제, 유럽통합, 외국군대 철수의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여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원칙인 일당독재체제의 위로부터 파기한 선례를 남겼다. 또 헝가리 의회는 국호를 헝가리 공화국으로 바꾸고 다당제 개혁안

는 국내적 요인과 국제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겠다. 내재적 요인은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인간의 보편적 요구가 스탈린식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억압되어 에너지로 축적되었다가 고르바초프체제 등장이라는 환경조건에 부딪혀 그 분쇄구가 터진 것이다.

한편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사회주의체제의 유지와 개혁을 위해 그 체제를 위협하게 될지도 모르는 대개혁 정책을 펴 왔다. 소련 경제성장의 둔화, 만성적인 소비재 부족, 과학 기술의 낙후, 생산성 저하, 노동력 부족의 구조적모순에 부딪혀 소련 경제가 빠른 성장과 질적향상을 가져오지 못하면 소련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체제 기반이 흔들리게 되어 소련제국은 결국 붕괴될지도 모른다든 그의 위기의식이 기반이 되었다. 고르바초프에 있어서 경제개혁 성공의 전제는 정치적 개혁으로 공산주의의 경직된 판로체제로는 소련의 경제가 소련 체제와 대립하고 있는 서방자본주

혁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1988년 1월8일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는 우리의 마지막 기회이고 만일 중단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끝이다'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소련에서 페레스트로이카 성공은 고르바초프 체제의 생사와 관련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의 압력은 동구국가들에 있어서는 그들의 운명을 개척하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한다. 본래 소련보다는 서구에 가까운 동구에서 사회주의체제는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분단된 유럽의 강제상황의 결과였다. 그 강요된 상황이 고르바초프에 의해 거지게 된 것이다.

III. 알타체제로부터 정치적 해방 요구

알타체제는 미국과 소련중심의 세계체제이다. 그 이전에 유럽은 세계사의 중심지였으나 유럽 대륙의 권력정치는 유럽이 주 전장이 된 세계 1·2차대전을 야기하여 이

서는 한국의 분단선을 중심으로 힘과 이데올로기의 분쟁으로 특징지어져 그 분단이 변화, 즉 미국의 소련의 세력범위의 어떠한 변경은 전쟁을 의미하여 왔다. 냉전기에 유럽은 분단되어 각각 미국과 소련에 군사적·경제적으로 의존하여야 되었고, 외교정책의 영역에서도 이 에 따라 그 독립은 제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핵시대에 들어와 군사력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변화, 군사력의 대규모에 걸친 전쟁은 전면전쟁을 초래한다는 공포가 인류의 파멸을 초래한다는 공포가 대항트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데탕트는 유럽에 있어서 기회였다. 서구동맹체에서 프랑스가 미국의 서구로부터 탈피,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유럽을 구상하였다. 비동맹정책과 자주노선을 표방하는 제3세계의 국가들이 국제정치에 등장하였고, 유럽공산당들은 각국 공산당의 자주성과 권리를 그리고 모스크바의 다른 사회주의의 길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체코

에서는 독자적인 체제의 자유화노선이 주장되었다. 데탕트의 틈을 타서 서독은 동방외교의 아니사이티브를 확보, 동맹국과 동방에 대하여 행동의 영역과 행동의 자유를 확대하였다. 1945년 얄타회담의 세력권의 분할이었으며, 그 세력권의 변경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전쟁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에 서 동맹국들이 행동의 영역과 자유를 획득하면서부터는 각 동맹국들은 대국에 의존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제각기 다른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여 데탕트는 알타체제로부터 '해방의 과정' 또는 '유럽복권의 신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60년대, 70년대 데탕트는 1975년 헬싱키조약을 중심으로 그 절정에 이르렀다가 79년 소련의 아프카나스탄 침공, 미국에서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으로 국제정세는 다시 열어졌으나 고르바초프 등장이다 시 해방기를 맞게 하였다. 그동안 서유럽의 지도자들은 댓가를 지불 없이 알타체제로부터 해방을 바라왔으며 유럽대륙의 분단을 피하고 통일된 강력한 유럽의 재건을 주장하여 왔다.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에서 분단된 유럽은 미소 대립의 현상에서 미국과 소련 전쟁에 가담해 있으면서 전쟁이 터지면 공동위험 부담을 안고 있어 왔다. 이로부터 나오는 공동의 위기의식은 유럽인들로 하여금 공동의 역사적·문화적 실체적식을 되살리려는 노력을 하여 오던 참이었다.

서유럽국가들은 그들의 특권한 경제력과 민주주의적 능력으로 동파 서의 대화에 있어서 교량적 역할을 하여 오면서 유럽인의 공동성과 문화적 동일성을 부각시켜 왔다. 정치군사력 관계에서 서구는 미국과 소련사이에서 중심운동과 원순운동 등 통해 독립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으며 유럽은 어느정도 강요된 상태에 있는가? 어느정도 기회를 가지고 있는가? 어느정도 그들 운명에 영

향을 줄 수 있는가? 현실을 자각하여 오던 참에 85년 고르바초프 新思考의교정정책에 의한 '유럽공동의 집' 구상을 만나게 되었다. 고르바초프의 대유럽 정책은 궁극적으로 서유럽국가들에게 소련의 존재가 안보상 위협이 안된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유럽을 미국의 영향권에서 분리시키는 데 있다. 한편 지난 10월20일에 바르샤바 7개국 외무장관 회의는 첫째, 주권과 의지에 의한 불간섭원칙 존중 둘째, 브레즈네프 독트린 폐기 셋째, 원 유럽 국경선의 고수를 선언 하였다. 지금까지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체이익을 위해서 한 국가의 이익은 중속되고 한 국가의 주권은 제한된다는 브레즈네프 독트린 앞에서 동구의 국가들은 사회주의의 독자적 길을 역행하여 왔으나 이제 체제는 세력사의 구도가 들어가기 전에, 붕괴하는 것처럼 보여 세계는 급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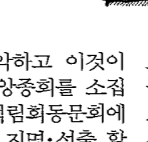
이러한 동구의 이러한 대내외적 인 변화는 앞으로 강력한 유럽을 재건하는 전제가 되고 그것은 알타체제를 주도하는 미국과 소련의 질서구도와는 다른 유럽독자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알타체제로부터 해방을 바라보던 서유럽의 통일된 강력한 유럽 구상과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동구의 변혁은 유럽의 자주화와 하나의 유럽이라는 의미에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유럽의 중립화 노선이 될 것이며 소련은 미국의 영향력이 서구에서 제기되면 소련의 안전보장이 지체될 것이라는 좌표안에서 이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30일 오후 4시 30분. 천겨울의 메서운 바람이 들이치는 정각인 회장이 말했듯이 불교관람에서의 표정의 스님들이 '학교발전'을 위한 '학원'을 열고 있었다. 정각원을 꼭 매운 스님들을 바라보며 방지하(동분회장)스님은

명분 잃은 재웅립

“학원스님은 후보출마를 계속 만류·고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 실력을 통해 승락을 받아야 하기에 이치리에 모았다. 개혁생에서는 근엄한 표정의 스님들이 재조명과 동국학원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의견을 과감하게 실행해야하는 단계이다. 지난 부정임사 때는 智冠스님이 공적인 일을 위해 혼자서 난을 당한 것이다. 때문에 명분에 있어서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현재 동국학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총장선출인이 틀림없다. 이를 위해서 총장이 반드시 스님교수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8월까지 총장문제를 포함한 동국사태를 파악하고 이것이 어려울 때는 긴급총장추진을 소집해야 한다. 이미 석림회동문회에 서는 李智冠총장을 지명·선출할 것을 숙의했다. 李智冠스님이 동국사태 이후 고심하셨을 본다면 동국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임시켜야 한다. 바로 이것만이 중립학교로서 동국을 살리는 길이다.” 스님들의 의혹에 한 눈돌자와 일부 수구하는 스님들을 바라보며 방지하스님은 계속 말을 이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참고 앉아있던 스님들의 한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智冠스님을 왜 꼭 다시 모셔야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사회적 시각에서 상당한 명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재웅립을 고집하기 보다는 다른 교수님들중에서 정동국인이 원하는 민주총장을 선출하는게 좋지 않을까?”하며 고개를 가우뚱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 창훈記者)

POSCO메세지—중강권

커피 한잔의 의미

대학시절처럼 타인과의 만남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때도 없습니다. 가까운 친구와, 선배와, 스승님과의 허물없는 대화는 지식으로만 가득찬 매마른 학창시절을 풍요롭고 기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타인과의 대화에 앞서 자기자신과의 대화에는 인생함이 없었던 한번쯤 생각해 봅시다. 가끔은 자기자신과 차 한잔을 마주 놓고 나누는 대화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인생의 커다란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되돌아볼 줄 아는 진지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당신의 주인은 당신과의 대화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알립니다. 포항제철에서는 대학생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만화를 공모합니다.

●참가자격: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규격: 8컷 1페이지 ●내용: (1) 포항제철의 국민기업 이미지를 고양 할 수 있는 내용 (2) 포항제철의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내용 (3) 직장생활의 터전을 소개하는 내용 (4) 기타 기업과 국민의 화합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 (5) 전체적으로 밝고 건전한 해학과 유희가 담긴 내용 ●윤곽선: 유선(12) ●단선(12) ●상: 10만 원 ●별표: 당선작 10만 원 ●공모기간: '89 12 1 ~ '89 12 31 (12월 31일 자 우편소인분까지 접수) ●보상금: 790-300 경북 포항시 북동동 1번지 포항제철(주) 홍보부 사보담당자 ●기타: (1) 판권 본사 소유 (2) 만화 내용은 필수 일부 수정가능 (3) 당선작은 회사 사보 등에 게재 (4) 동무자는 성명·주소·학·과·연락처(전화번호) 명기 바람 ●문의처: 포항제철(주) 홍보부 전화: 서울(02) 758-4263 포항(0562) 70-0573, 0574

통일전선 강화로 역량 확대해야

1. 합법정당 논의의 배경

합법정당을 둘러싼 전민련 내부의 진통은 올 상반기 공인정당의 토대와 함께 진행된 민족민주운동의 혼란에 기인한다. 현재 민족민주운동은 내부의 사상적·조직적 갈등과 명확한 자기노선의 부재에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는 지난 상반기 각계각층 애국민중의 확실한 대중투쟁의 진전에 불구하고 그것을 지도하고 결집시켜나갈 임무를 지닌 전민련의 침체와 표류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전민련의 정치력의 부재와 조직적 전방의 불투명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이는 전민련의 문제점이자 곧 전제민주주의운동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민련내의 합법정당 논의는 이 '위기'에 대한 서로 다른 진단과 처방에 근거한다.

앞서 말한 민족민주운동의 혼란과 위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전민련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87년 상반기 투쟁과정에서 역량의 부진에 의해 일시적인 투쟁대열을 형성하고도 상황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전술적 유연성을 구사하지 못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그 원인이 의사결정과정의 복잡하고 느린 전민련의 구조적 취약성, 그리고 더 크기는 전민련의 부족에 있다고 보며, 해결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외적 협력의 문제라고 본다. 그리하여 이 견해는 결국 전민련이 가진 문제는 합법정당건설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이에 대해 두번째 견해는 상반기투쟁과정에서 대중의 적극적 참여가 확보되지 못하고 투쟁의 급속한 확산과 진전이 제약된 것은 현재의 정세에서 주어지는 조건과 변화된 정세에서 주체역량의 집중과 편성에 일정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개방화 의 환상 ②지배권력의 분할지배전술 ③변화된 상황속에서도 안전한 낙관론과 주관주의적 조급함의 난무 ④운동의 전방과 전략적 과제에 대한 모호함과 통일의 결여 ⑤조직운동의 미흡함과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합법정당의 모색은 시기상조라 밝히고 전민련의 강화발전을 주장하고 있다.

2. 합법정당건설의 문제점

합법정당건설론의 주요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주객관적 정세속에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새로운 대세력으로 나서야하며 이 경우 정당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스럽다는 주장이다. 둘째, 민족민주운동에 있어 비합법·반합법활동 이외에도 합법영역활동의 중요성

- 전민련 내에서 정기표...
- '씨들이' '합법정당' 건설을...
- '제기한 이후' 올바른 의회...
- '전술에 대한 논쟁이 현실...
- '화 되고 있다. 이 글에서...
- '는 합법정당의 위상과 울...
- '다른 정치조직의 성격...
- '살펴보고자 한다.
- ' (편집자) ...

에 비추어볼때 이러한 합법영역을 정치적으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당활동이며, 이를 통한 대중운동공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각계각층 대중운동이 성장함에 따라 구체적·전술적 정책

을 추진해 오고, 운동내부에도 상당한 좌절감이 조성되어 있다. 합법정당의 결성이 대중적 공감속에서 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때 이런 시점에서는 합법정당건설도 힘있게 추진되지 못할 것이며, 최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합법정당은 오히려 전민련역량의 약화로 귀결될 것이다. 둘째, 객관정세와 관련하여 현시기 우리의 역량관계는 지배세력의 우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다소 골짜기 있을지라도 탄압 기조가 유지될것임을 의미하며, 한편 우리는 이를 반격할 내적 준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엄중하고 제도야망마저 탄압을 받는 현재의 폭압적 정세속에서 합법정당활동은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으며, 개방화의 가능성과 보혁구도에 휘말릴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셋째, 주체역량의 문제이다. 현재 기본계급운동은 양적 두축 면에서 크게 성장했지만 아직 대중의 정치적의식은 낮으며, 이를 지도하고 집중해낼 사상적·조직적 기초도 미약하다. 현재의 조건에서 선결과제는 주체역량의 확보이며, 주체역량의 확보는 합법정당에 대중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상충인사들의 정동으로 전략할 위험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세력화'의 문제이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이미 그 자체로서 하나의 정치세력이며 따라서 정치세력화=합법정당건설이 아니라 합법정당은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의 일부부분이요 수단이다. 그리고 민족민주운동의 전반적인 정치세력화의 정도를 규정하는 것은 합법정당의 존재유무가

아니라 총체적인 힘, 역량이며 그 힘은 합법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어떤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는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대중의 계급적 현실과 이해에 입각한 투쟁력과 조직력 및 그에 의해 뒷받침되는 대중의 정치투쟁력이다. 따라서 의회전술내지 합법정당활동은 기본적으로 대중투쟁에 복속하고 종속되는 것이며, 부차적 지위와 역할을 갖는 것이다.

3. 전민련의 강화·발전

현시기 민족민주운동의 핵심과제는 대중의 진출정도 높고, 려하여 통일전선을 올바르게 꾸리면서 대중역량을 부단히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곧 전민련의 강화·발전을 의미한다. 즉 현시기에서 미국-군사독재정권의 고도의 폭력과 정치이데올로기 진영을 수반한 탄압에 대응하고, 대중운동의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요구를 지닌, 수형해 나갈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적, 조직적, 투쟁적 구심지로 전민련을 세워나가는 것이 민족민주운동의 핵심적 과제이다. 물론 전민련은 그

합법정당론 : 제한된 의미 가져

◇전국적 반노동쟁반이 이 정세에서 대중의 정치조직화를 앞당길 수 있다. (자료사진 = 노동해방론)



선진 자본의 가장 후진적 착취

70년대만 해도 노동자를 사에서 「외국인회사에 다닌다」고 하면 주위로부터 괜한 신망을 받는 경우가 흔했다. 그러나 최근 2-3년간의 사례는 자기기업의 본모습을 생생히 폭로하고 있다. 반동적 요소와 결합된 제국주의적 착취와 억압,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권력의 전폭적인 비호는 87년 이래 전진을 거듭해온 노동자계급과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빚어진 쟁의는 국내의 어떤 기업에서보다도 격렬하고 장기적인 양상을 띠었다.

외자기업은 노동자에게 있어서 계급문제와 민족문제가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곳이다.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국에서 생겨난 외국자본이 지행하는 가장 후진적인(?) 폭압은 노동자계급에게 민족모순에 대한 계급적 감각을 드높이고 국가권력의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1. 외자기업이란?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제국주의 체계의 구조변화와 그 자본수출방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1960년대부터 외국인의 직접투자자가 본격화되었다. 연속적 공업화를 통한 외형적 경제성장에 권력의 정통성을 결여한 역대독재정권은 저임금·저가격정책을 축으로 한 민중희생의 기반 위에서 내외독점자본의 축적을 적극 보장해 왔다.

외국자본철수 무얼 의미하는가

1962년 외자도입이 실시되고, 65년 환원회담을 거쳐 1970년 수출자유지역이 설치됨으로써 미국·일본계의 자본이 몰입듯이 들어왔던 것이다. 이들이 설립한 업체에는 관세와 국내소재의 감면, 이윤송금의 보장, 외국자본에 대한 우선 배당 등 각종 특혜와 지원이 부여되었다. 마산수출자유지역 등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인세·부동산 등 취득세의 5년간 면제, 3년간 감면, 배당소득, 기술사출입의 감면, 관세·물품세 등 수출입세의 면제 등 파격적인 투자여건이 조성되었다.

2. 휴폐업과 자본철수

외국자본의 억압성은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권리를 행사하려 할 때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노동조합 결성의 원천 봉쇄로 출발한 이들의 노동운동 억압은 최근 자본철수라는 극단적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특히 제조업에서 원화철결과 임금인상을 구실로 반발하고 있다. 또한 그로 인해 외국자본의 산업별 구성은 크게 변화되고 있다.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서비스 금융부문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제조업의 경우 87년 이후 68개 업체가 자본을 철수했고, 그중 26개업체는 89년에 폐업을 단행한 것들이다. 장기 휴업업체를 포함하면 올들어서만 31개업체가 문을 닫았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은 특히 심각하여 올들어 8개업체가 폐업하였고, 작년말부터 올해 5월까지 반년간 발생실업자수는 5천명에 이르렀다.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외국자본의 억압은 국내기업에 능가할 정도로 노골적·폭력적이다. 폐업과 자본철수는 그들의 이러한 노조탄압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들 사업장의 쟁의 양상은 처음 노동조합이 결성될 때부터 회사측의 부당

동통제하에서 중중 그 효과가 감쇄된다. 격부급과 인사고파를 기초로 한 차등임금인상제도, 복잡다단한 임금체계 등은 노동자 개인을 자본이 장악하고 노동자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노동강도와 소의를 부채질한다. 더구나 제조업에서는 민족적 차별과 인종적 멸시가 널리 지행되고 있다.

3. 자본철수에 대한 노동자의 투쟁

외국자본의 철수는 해당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고용이라는 생활조건이 근본적으로 박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철수의 경향은 국제경제구조의 변화 및 국내 정치·경제의 예측불가능과 함께 특히 제조업에서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반대 다국적기업의 노동문제는 제3세계 국가권력까지도 일제하게 정면하여 자유로이 이동하는 제국주의자본과 해당국가권력의 보호도 받지 못하며 일국내에 제한되어 있는 노동자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며, 따라서 노사간의 세력균형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노동문제는 결코 해당국내의 노동자간 교섭으로 풀려야 어려우며 정치적 성격을 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적 억압과 착취를 제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유지·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1백50만, 2백50만 이상 장기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한국TC, US마그네틱 등 9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외국자본 부당철수 등에 대한 공동투쟁위원회는 외자도입법을 개정하여 인권기준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자를 공개하는 등 다양하고 치밀한 사상봉쇄가 뒷받침된다. 이러한 사전조치를 경시한 뒤, 노동조합이 쟁의를 시도할 경우에는 직장폐쇄, 일방적 폐업 등 선제공세를 취하는 것이다. 이후 이들은 일체의 노사교섭을 거부하고 설비와 원자재 등 자본의 철수를 실행에 옮긴다.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경우 88년 상반기에 외국자본의 이러한 일련의 각본에 따른 공세에 처한 사업장은 25개 이상을 헤아렸다.

노동력 빨아먹고 적반하장 휴폐업 매관정권 비호...노동자만 발 동동

내 생산성향상도 이들 자본에게는 관철되지 않았다. 외자계열 제조업의 대부분이 국내산업과의 연관없이 원자재 가공과 전방수출을 해왔으며, 기술이전은 커녕 지적소유권 등을 이용하여 동종 국내중소기업을 몰락시키기도 한다. 게다가 상당수 업체는 파산송금이 자본금을 상회하는 가운데서도 특혜의 조건(면세기간의 만료 등)에 따라 철수와 전입을 되풀이해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외자기업의 노동조건 역시 결코 좋은편이 못된다. 월보급에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것일조나 최근 국내기업의 임금상승으로 격차는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부문의 중소기업은 오히려 국내업체보다 열악한 경우도 적지 않다. 게다가 약간의 상대적 고임금도 미국식 노무관리의 한국적 편향을 요묘히 뒤섞은 노

과 착취를 제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유지·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1백50만, 2백50만 이상 장기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한국TC, US마그네틱 등 9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외국자본 부당철수 등에 대한 공동투쟁위원회는 외자도입법을 개정하여 인권기준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자를 공개하는 등 다양하고 치밀한 사상봉쇄가 뒷받침된다. 이러한 사전조치를 경시한 뒤, 노동조합이 쟁의를 시도할 경우에는 직장폐쇄, 일방적 폐업 등 선제공세를 취하는 것이다. 이후 이들은 일체의 노사교섭을 거부하고 설비와 원자재 등 자본의 철수를 실행에 옮긴다.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경우 88년 상반기에 외국자본의 이러한 일련의 각본에 따른 공세에 처한 사업장은 25개 이상을 헤아렸다.

임 주 응
(한국노동연구소 대표기자)

아니, 테이프도 목이 쉽니까?

물론입니다. 녹음된 것을 원음 그대로 재생하지 못한다면 '테이프가 목이 쉬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경우와 달리, 테이프는 한번 목이 쉬어버리면 유감스럽게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테이프가 목이 쉬는 것은 첫째, 테이프 표면에 입히는 자성체입자가 균일치 않아 처음부터 소리가 고르지 않은 경우 둘째, 온도나 습도, 사용횟수로 인해 음색이 변형되는 경우 셋째, 메카니즘(Mechanism)이 정밀하지 않아 테이프가 영커거나 잡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테이프를 골라 쓴다면 별로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스마트'는 첨단기술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생산하는 '목이 쉬지않는' 좋은 테이프입니다. 음악이나 회화를 언제나 원음 그대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MAT

SUNKYONG

1
90년대를 바라다보는 시점에서 바로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역사를 총체적으로 살핀다는 것이 무리한 일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그 시간적 근접성에 따른 시각의 협소함 뿐만 아니라 역사의 진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서 따로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리를 헤가면서까지 인간이 자신의 역사를 반추하

지 못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상의 왜곡 역시 대중의 뇌리에 깊게 박혀있는 것이다. 더불어 문예부분에 있어서도, 소시민문학과 반동문학이 아직까지 문단의 주역임을 자처하면서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의 문예운동은, 그 80년대의 미약적 발전 속에서도, 아직까지 현실운동과 계급운동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노동자계급에 개진·선동할 독자적 조직과 실천적 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의 연속선상에 있다. 모순론에 있어서 이론적인 필요를 보이고 있는 민족문학론은 일단 논의로 치고 논의를 전개해 보자. 반제·민족해방에 복무할 것을 주장하는 백진기씨 중심의 민족해방문학론이 갖고 있는 결함은(그 변혁론과 수미일관하는) 당파성의 결여와 대중성, 혹은 민중성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 있다. "민중주의의 반제 민족해방에 복무"하는 문학이 그 구체적인 민족혁명에

- ◇글 심는 차례
1. 시-민중적 삶의 실체와 (이동식·문학평론가)
 2. 소설-주체적 역사인식의 확산 (서경석·서울대강사)
 3. 평론-민중문학논쟁의 발전확대 (최철권·문학평론가)
 4. 문예운동-사회변혁역량의 조직성 (임규찬·노동해방문학평론위원회)
 5. 90년대 문학운동의 전망-민중문학의 지평확대를 위하여

달하나 강가에



얼마전 학교신문에 '세숫물 망언'이라 하며 기사화 되었던 일이 있다. 신문에 실렸던 내용의 어째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지도 못하는 내가 여기서 그 얘기를 다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일이 생기게 된 것은 학교의 주체가 무엇이며 생체가 무엇이라는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고 나의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사람에게 따라 학교의 주인은 '제단이다' '교수다' '학생이다' '구성원 모두다'라는 식으로 각기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그 주장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나름대로의 타당한 논리가 있다. 그러나 대학의 본질이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건물이나 사람이 있지 않고 교육이라는 개념에 있을 때 학교의 주인은 교육인 것이다.

학교의 주인

金眞澤
(현대대교수·조직학)

이러한 보조수단 없이 선생과 학생으로 교육이 이루어 질 수는 없어 그 어느누군가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존경받는 선생, 진지한 학생, 훌륭한 시설, 양질의 사무행정,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되고 이 모든 것이 주체이며 주인인 것이다. 구성된 모두가 맡은 바 책임에 충실할 때 주체와 객체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 특히 배움에 임하는 선생과 학생의 관계는 더욱 조심스럽다. 학교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단순한 지식의 전수에 있지 않고 인격의 도야에 있기 때문에 그 둘의 관계는 존경과 애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혹시 '학생이 낸 등록금에 의해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주인은 학생이다' 학교에 고용된 교수는 마땅히 가르쳐야 할 의무만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없는지 걱정스럽다. 그러한 생각에서 학사실정이 학생의 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휴·개강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닌지,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가 학생의 손에 의해 임용되어야 한다고 믿는 학생은 없는지, 또 '선생을 존경하지 않고 학생의 바르지 못한 학생이라서 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선생은 없는지 염려했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정면으로 왜냐하면 선생과 학생간에 신뢰와 정을 잃어 버리면 학교에서 더 이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교육이 보다 전문화 되었고 규모가 커졌다

문예운동 실천적 가능성의 지침

80년대 문학운동을 점검한다

마지막회

는 까닭이 열려진 미래에 대한 확신과 그를 위한 실천적 지침의 획득을 빼놓고는 그 아무곳에도 없다는 확고한 전리만이 무겁게 다가올뿐이다. 신식민주의가 독재자본주의의 광풍이 몰아치는 조국울의 지금 26일에 있었던 연세대 집회와 현이영이 넘는 노동자와 학생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우리는 매서운 눈겨울의 바람속에서도 얼음장 밑에 흐르는 불기운을 잔잔히 헤안고 역사를 실천적 결속속에서 찾아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곧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선 것이다. 이렇게 장황하게 서두를 시작하는 이유는 작금에 노동자계급이 처한 현실 만물이나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험난하며 그것이 역사와 현실에 대한 무철한 전리인식이 없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이니 남한문제전사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예운동에 있어서 조직이 그 이념이 지니는 무게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때 남한문제운동이 안고있는 속제는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직결성의 문제가 한 조직의 주관적 선이나 각 정파의 이념을 도의시한 대등단결의 호소로써 끝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문예운동상에서 드러나는 편향들은 시급히 제거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임무의 주체라는 문제전면의 노동운동과의 실천적 결속속에서 찾아야 마땅할 것이다. 문예운동이 그것도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꾀하는 노동자계급문예운동이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의 성장과 노동운동의 발전에 촉발·진전되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문화적 역량강화를 그 주요임무로 설정하고 있음은 각국의 혁명적 문예운동이 실증하고 있는 바이다. 10월혁명 전후의 러시아 문학이 그러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의 문예전통이 또한 그러하다.

대한 이해를 거부한 채 미분화된 민중관을 고수함으로써 당파성을 '민중주의'속으로 용해시켜 버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민족문학론(조성환)의 당파성을 전선부정적 견해로 오인하는 점이나 노동자계급에게 모나주 주장하면서도 분화된 계급적 주체의 현실에 대한 불이해에 기반한 무계급적 상향적 통진론이 바로 그 예증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중성의 구현이 당파성을 확고히 한 상향에서나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중적'당파성이라는

틀나바퀴를 자임하고 나선 이류층의 하나나 노동자계급운동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모순을 노동자계급에게 문학적인 형상을 통해서 인식시켜주며 모순극복의 현실적 대안과 경로까지 밝혀주는 것이라고 할 때 노동자계급 현실주의를 형상화방식(실)으로만 이해하는 그의 문학론은 '장면대담'식의 문제제기를 포괄한 현실주의적 경향을 논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김명인의 언급은 문제점을



◇4·30 노동절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노동자들은 '주체'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2
문예운동이 그것도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꾀하는 노동자계급문예운동이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의 성장과 노동운동의 발전에 촉발·진전되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문화적 역량강화를 그 주요임무로 설정하고 있음은 각국의 혁명적 문예운동이 실증하고 있는 바이다. 10월혁명 전후의 러시아 문학이 그러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의 문예전통이 또한 그러하다.

2
문예운동이 그것도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꾀하는 노동자계급문예운동이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의 성장과 노동운동의 발전에 촉발·진전되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문화적 역량강화를 그 주요임무로 설정하고 있음은 각국의 혁명적 문예운동이 실증하고 있는 바이다. 10월혁명 전후의 러시아 문학이 그러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의 문예전통이 또한 그러하다.

2
문예운동이 그것도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꾀하는 노동자계급문예운동이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의 성장과 노동운동의 발전에 촉발·진전되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문화적 역량강화를 그 주요임무로 설정하고 있음은 각국의 혁명적 문예운동이 실증하고 있는 바이다. 10월혁명 전후의 러시아 문학이 그러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의 문예전통이 또한 그러하다.

2
문예운동이 그것도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꾀하는 노동자계급문예운동이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의 성장과 노동운동의 발전에 촉발·진전되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문화적 역량강화를 그 주요임무로 설정하고 있음은 각국의 혁명적 문예운동이 실증하고 있는 바이다. 10월혁명 전후의 러시아 문학이 그러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의 문예전통이 또한 그러하다.

역사-현실에 투철한 인식 지닌 문예전사 절실 90년대 임무는 노동자조직의 건설과 계급해방

2
문예운동이 그것도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꾀하는 노동자계급문예운동이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의 성장과 노동운동의 발전에 촉발·진전되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문화적 역량강화를 그 주요임무로 설정하고 있음은 각국의 혁명적 문예운동이 실증하고 있는 바이다. 10월혁명 전후의 러시아 문학이 그러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의 문예전통이 또한 그러하다.

2
문예운동이 그것도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꾀하는 노동자계급문예운동이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의 성장과 노동운동의 발전에 촉발·진전되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문화적 역량강화를 그 주요임무로 설정하고 있음은 각국의 혁명적 문예운동이 실증하고 있는 바이다. 10월혁명 전후의 러시아 문학이 그러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의 문예전통이 또한 그러하다.

2
문예운동이 그것도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꾀하는 노동자계급문예운동이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의 성장과 노동운동의 발전에 촉발·진전되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문화적 역량강화를 그 주요임무로 설정하고 있음은 각국의 혁명적 문예운동이 실증하고 있는 바이다. 10월혁명 전후의 러시아 문학이 그러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의 문예전통이 또한 그러하다.

2
문예운동이 그것도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꾀하는 노동자계급문예운동이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의 성장과 노동운동의 발전에 촉발·진전되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문화적 역량강화를 그 주요임무로 설정하고 있음은 각국의 혁명적 문예운동이 실증하고 있는 바이다. 10월혁명 전후의 러시아 문학이 그러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의 문예전통이 또한 그러하다.

을 가로막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임영일, "실천문학" 89 겨울호)이라는 동지적 비판이 유효할 듯 하다. 물론 이 말이 건설적인 상호비판에 근거한 발언을 부정하는 은정주의적 '당파취향'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양 진영의 변혁론상, 문예이념상의 수미일관한 진전은 더욱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5
한편 문예를 통한 노동운동의 실천적 기여를 목표로 출판한 두 이념전선에 투철한 해방의 노동운동에의 목적의식적 결함의 부재와 현실의 물질관계를 요구하는 선진·선동을 주임무로 하고 출판한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이하 노동련)은 노동자계급문예의 중추세력으로서 상기 임무를 목적

로 보거나 절제시키는 편향을 지적하면서 보고문학이 필요한 현시기 운동의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일상화되고 대규모화되어 가고 있는 대중적 계급투쟁의 현실(.....) 이렇게 연속되는 총체적인 사건들 앞에서 문학이야 손을 놓고 '현실이 작품보다 더 문학적이다'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역사를 진보시키는 하나의 방향, 즉 혁명의 이념속에서 통찰하고 신속하게 포착하며 문학적으로 형상화내야 한다." ("노동해방문학" 11월호 p.429 ~431)

5
한편 문예를 통한 노동운동의 실천적 기여를 목표로 출판한 두 이념전선에 투철한 해방의 노동운동에의 목적의식적 결함의 부재와 현실의 물질관계를 요구하는 선진·선동을 주임무로 하고 출판한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이하 노동련)은 노동자계급문예의 중추세력으로서 상기 임무를 목적

를 극복하고 이제 세로이 등장한 남한노동자계급에 발맞추어 혁명적 문예전선의 부활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 80년대초의 단편적인 체제위주의 수기류에서부터 박노해와 백무산에 이르는 혁명의 문예에까지 그 추위와 발전의 속도는 다양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현실속에서 배태된 미래의 '전망'을 선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야 할 고개는 많다. 자본가계급의 '계급화'의 유혹으로부터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 그리고 우리의 가슴속에 은밀히 파고드는 소시민적 편향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며 또 누구이며 어떤 하는가를,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건설과 선취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을

6
40년이라는 긴 역사적 단절

3
민중문학론, 민족적민중문학론, 민족해방문학론, 노동해방문학론(이 범주에는 '노동해방문학'이 속한다)의 작가와 이론전이 포함되며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 소속 문예역량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범정 '노동해방문학론'이라는 용어로 두 집단을 포괄하는 이유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두 집단의 문학론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이론적 진전속에서 두 집단의 구별점이 드러날때는 새로운 용어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 등으로 정립되어온 80년대의 문예운동의 구도도 다시 살펴보는 이유

3
민중문학론, 민족적민중문학론, 민족해방문학론, 노동해방문학론(이 범주에는 '노동해방문학'이 속한다)의 작가와 이론전이 포함되며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 소속 문예역량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범정 '노동해방문학론'이라는 용어로 두 집단을 포괄하는 이유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두 집단의 문학론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이론적 진전속에서 두 집단의 구별점이 드러날때는 새로운 용어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 등으로 정립되어온 80년대의 문예운동의 구도도 다시 살펴보는 이유

3
민중문학론, 민족적민중문학론, 민족해방문학론, 노동해방문학론(이 범주에는 '노동해방문학'이 속한다)의 작가와 이론전이 포함되며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 소속 문예역량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범정 '노동해방문학론'이라는 용어로 두 집단을 포괄하는 이유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두 집단의 문학론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이론적 진전속에서 두 집단의 구별점이 드러날때는 새로운 용어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 등으로 정립되어온 80년대의 문예운동의 구도도 다시 살펴보는 이유

3
민중문학론, 민족적민중문학론, 민족해방문학론, 노동해방문학론(이 범주에는 '노동해방문학'이 속한다)의 작가와 이론전이 포함되며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 소속 문예역량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범정 '노동해방문학론'이라는 용어로 두 집단을 포괄하는 이유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두 집단의 문학론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이론적 진전속에서 두 집단의 구별점이 드러날때는 새로운 용어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 등으로 정립되어온 80년대의 문예운동의 구도도 다시 살펴보는 이유

이전까지 주로 자연생태적인 작가들의 작품에 크게 의존해 왔던 노동계급문예가 이제는 노동운동에 당파성을 양성해내고 창작성과 보급과 공유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명 '노동해방문학' 11월호에 게재된 조경환씨의 '문학가의 전선이탈과 창작의 침체를 둘러싸는 노동자계급의 문예운동 전선'이라는 글은 크게 주목을 요한다.

조경환씨는 이 글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작가들의 무기력과 이에 대비되는 민중들의 '진실'에 대한 목마름을 현 남한문예운동은 자기비판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후 '보고문학화'의 조력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그는 보고문학을 형식주의적으로

이전까지 주로 자연생태적인 작가들의 작품에 크게 의존해 왔던 노동계급문예가 이제는 노동운동에 당파성을 양성해내고 창작성과 보급과 공유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명 '노동해방문학' 11월호에 게재된 조경환씨의 '문학가의 전선이탈과 창작의 침체를 둘러싸는 노동자계급의 문예운동 전선'이라는 글은 크게 주목을 요한다.

조경환씨는 이 글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작가들의 무기력과 이에 대비되는 민중들의 '진실'에 대한 목마름을 현 남한문예운동은 자기비판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후 '보고문학화'의 조력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그는 보고문학을 형식주의적으로

이전까지 주로 자연생태적인 작가들의 작품에 크게 의존해 왔던 노동계급문예가 이제는 노동운동에 당파성을 양성해내고 창작성과 보급과 공유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명 '노동해방문학' 11월호에 게재된 조경환씨의 '문학가의 전선이탈과 창작의 침체를 둘러싸는 노동자계급의 문예운동 전선'이라는 글은 크게 주목을 요한다.

조경환씨는 이 글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작가들의 무기력과 이에 대비되는 민중들의 '진실'에 대한 목마름을 현 남한문예운동은 자기비판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후 '보고문학화'의 조력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그는 보고문학을 형식주의적으로

문화잡지

선생님 / 사랑...

민중영화 연구회 '광야'와 '해방영화집단'이 공동제작한 영화 '선생님 / 사랑합니다'가 오는 10일까지는 예술극장 한 마당에서, 12일부터 20일까지는 신선소극장에서 각각 상영된다.

이 영화는 학교교육과 전교조 합법성 쟁취의지를 담은 16mm 영화로서 이데올로기 정색에 의해 비틀어져 있는 학교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부각시켜 사회적 주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과 직접적 희생자인 학생들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의는 278-0336)

습관의 힘

극단 '76단'은 토마스 베르하르트편의 희극 '습관의 힘'을 오는 25일까지 '공간사'에서 오후4시와 7시에 각각 공연한다.

이번 작품은 체제와 구조속에 갇혀있는 인간들의 예술을 향한 광기와 끈대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희극이다.

(문의는 763-0771)

동약廣場

호화사은회 빈축

12월을 전후, 각 학과별로 마련되는 사은회, 졸업생생송회가 연례행사로 성황을 이루고 있어 교수와 학생, 졸업생과 재학생간의 친의없는 대화의 시간이 회기에에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의 내용과 장소는 살펴보면 그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형식에 치중 한 나머지 과소비열풍을 부추기고 있고 이러한 경향에 대한 우려와 비난의 소리가 높다. 며칠전 유년시 다방관람을 지나가다 다방관람이후 'O'와 졸업생환송회'라는 문구가 붙어있고 그 안에는 일곱색깔 배너가 있어 현란하게 돌아가는 광경을 보게되었다.

조명은 나이트클럽보다는 못했지만 일부학생들은 자리에 다른 학생들은 비비포드 전신을 흔들며대는 모습은 흡사 '담쟁'을 연상케 했다.

이는 향락문화의 대명사인 나이트클럽을 허용중은 문구어 캠퍼스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물론 원소회의 내용중 뒤돌아보면 원소회의 내용은 다지는 '투어' 방법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들의 전채적으로 던져주는 대학내의 자기모순이다.

즉 소의받고 어려운 이웃들 민중의 고통을 동정했다는 도사관에서의 투쟁대담과 다방관람에서의 향락문화적인 행태의 이중성은 신성시해야 할 상이함과 일반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을 왜곡·부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비틀거리는 국내경제와 과소비열풍조가 달아오르고 있는 일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사치행락의 세태가 대학가에까지 침투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정당화되어선 안 된다.

대학원은 수많은 근로청소년에 비해 선택된 존재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양심의 마지막 보

백종균 (문과대 철학과)

역사교육과 교과내용 개선대야

차기엔 날개속에서도 1주일째 교무처장실을 점거하여 협박을 하고 있는 역사교육과 학생들을 보면서 이전 전선적인 교과과정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당위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역사교육과'의 개명개칭을 지난 10월 30일 문과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 시간 인장과 교수승

원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이것은 결국 학교공공의 무성화와 중앙교과위의 와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역사교육과'로의 개칭은 단순한 명칭 자체만이 바뀐 것이 아니다. '역사'로 바뀌었다면 그에 맞는 교과목도 바뀌어야 한다. 교과과정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칭만 바뀐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역사교육과'에 걸맞은 진정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교과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제 역사교육과의 가결된 교과과정들을 보면 이에 우리는 하나의 '과'차원의 투쟁이라는 관점이 아닌, 범모양 차원에서 보다 더 조직적이고 전면적인 교과과정 개편작업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될때만이 진정한 대학의 학문사상의 자유가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최은옥 (사범대 국과과)

집회장소 정착절실

대학에는 많은 가치와 역할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것들 중에는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또 학문에 열중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현재 학내시위가 많고 있고 그들의 소리에 많은 부분이 동참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할말이 있어 이 글을 쓴다. 작년 학우들의 성과물중 하나가 만해 광장의 설립이다.

만해광장의 설립목적은 학내 행사내지 집회장소로 쓰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요즘 집회 여는것을 보자면 대부분 도서관 앞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우들은 집회가 열릴때마다 마이스리키와 구조소리에대해서 야옹고 공부여 열중할 수가 없다.

예 편이 집회를 도서관에서 열어야하는가. 만해광장과 운동광도 있는대 말이다.

학생들을 데리다 집회에 참여시키기위한 것이라 하지만 그 때때로 도서관에 있는 학우들이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대학에는 많은 가치와 역할이 존재하고 양보하는 곳이다. 앞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집회문화가 정착되어야겠다.

유기용 (법과대 법학과)

아버지의 초상을 든 소녀의 눈망울에서

오늘날 우리의 주변은 수많은 사진으로 뒤덮여 있다.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신문의 현장감 넘치는 보도사진, 신문 사이의 전면에 모델과 함께 실린 광고사진, 벽면에 걸려거나 앨범에 보관된 여러 종류의 생활사진, 각 분야의 서적마다 실린 수많은 자료사진, 그리고 심

문자와는 다른 방식의 매체를 갖게 되면서 사진술의 내용적 바탕이 되기도 했다.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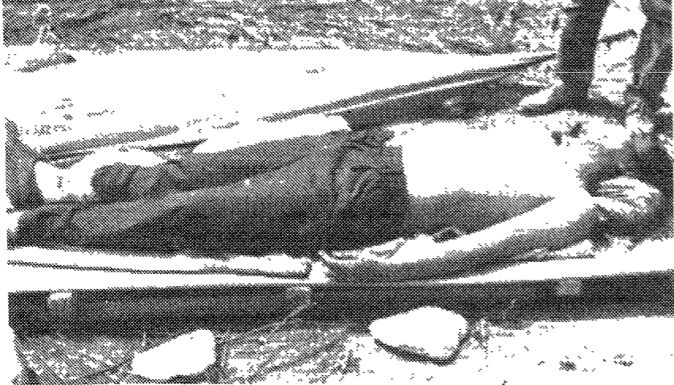
예를 들면 독일의 농민전쟁 당시 농민들이 봉기하면서 편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 민중

사진의 매체적 특성에 대하여

이처럼 사진이란 사회 발전에 따라 우리 인류가 탄생시킨 또 하나의 문자로서 영상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사진은 단순히 보여지는 것이 아닌 누군가가 자신의

용을 설명하는 사진을 비교하면 그 차이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즉 사진을 누가 어떻게 찍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엄청난 거리감이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 1980년의 광주를 담은 당시의 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폭도들이냐 했었다. 하지만 그 뒤에 광주에서 꾸준히 나온 사진자료를 보면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비극적 동족상잔의 아픔이 나타나있다. 왜 같은 내용을 담은 사진이 하나의 군사정권의 질판기만이 될 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막대한 군사정권을 무너뜨리는 힘으로 분출되었을까?



◇헤이내창열사의 사진규명도 이뤄져야 한다.

이철규열사의 참상 사진 국민에게 진실내막 전해

간에 알려주었던 것이 좋은 예이다. 결국 사회변동에 따른 사회 내적인 불안요소의 노출 방법으로서 편파가 효용성을 획득한 것은 표현수단에 있어 상당한 반향을 가져왔고 그 결과 반복적이면서 효과적인 표현매체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어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오늘의 사진을 탄생시켰다.

의사를 강렬하게 표현한 매체로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일정정도의 강요를 주입시킴으로써 우리의 사고를 촉발하게 하는 매체이다.

제도권의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에서 보여주는 집회 또는 시위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여러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가야 사회단체들의 기관지나 선전물에 실린, 같은 내



지어 텔레비전 등에서 보여지는 수 없는 사진(영상) 등 아무 해일 수가 없다. 아니 온통 사진을 기초로 한 시각문화와 천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많은 사진과 함께 해야 하며, 나아가 새로운 장면을 담아낼 사진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그 대답은 사진이 과연 무엇인가는 실제로 접근했을 때 나온다.

우리 인류는 이미 오래전에 서로의 의사소통을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문자를 만들어 냈다.

사진 역시 19세기 초반 일정정도 산업화가 전개된 유럽에서 새롭게 등장한 시간개념이 이전의 부르고아계급이 누렸던 초상화를 자신들도 갖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자연을 그대로 화폭에 재현하고자 했던 인간의 욕심이 있었기에 사진술이 가능했던 토대는 무시할 수 없다.

이같은 토대 위에 자신의 얼굴을 좀더 정확하고 아름답게 묘사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진술의 실용화도 적극 추진되었던 것이다.

한편 문자 등의 의사표현 수단을 갖지 못했던 기층 민중들도

취업안내 학생과 졸업생의 활동전개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은 80년대에 들어 급격히 늘어난 대학인구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산업화현상이 맞물려 해마다 고학력 실업자, 소위 취업준수생들이 대량으로 배출되는 심각한 문제에 당면해 있다. 이러한 제반현상은 한국자본주의사회가 내포한 속성들이 나타난 결과물들이며 쉽게 해소될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동학의 경우도 이러한 세태속에

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외부기업에서 취업의뢰자가 들어오면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을 검토한후, 해당학과와 교학과나 과대표를 통해 학생들과의 연락을 맺어주고 있다. 그런데 취업의뢰가 들어오는 기업들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인데 반해, 학생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이유로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이에대해 취업계에서 근무하고

독립한후, 9월중순 리크루트 면접위원을 강사로 초빙, 4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업설명회와 면접특강을 실시하는등 다양한 취업정보, 취업교양강좌를 이루어내고 있다.

그러나 실력만 가지고도 취업이 잘안되는 현실이 있어, 학교당국이나 교수, 동문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 한계점을 쉽게 드러내고 있다. 교수나 동문들의 취업에 대한 도움이라고는 지난6월 민주중문학회

취업희망원 기초로 상담후 취업알선 대기업 선호성향으로 취업난 가중

서 매년 학년별(특히 4학년의 경우)이 되면 많은 학생들에게는 취업여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생과 취업계에서는 매년 2학기부터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희망원을 일괄적으로 배부, 수거한후 이를 기초로 상담을 실시하지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다수이고, 이력서를 개인별로 제출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취업알선

있는 이익성서는 "학생들의 대기업 선호성향때문에 취업난이 더욱 가중된다"면서 "전국적이고 적극적인 짧은이러한 경직되어 있는 대기업보다 발전 가능성이 많고 자기성취를 경험할수 있는 중소기업을 권장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지난 1학기까지 대충의 특별기구로 엘리트대학등에만 국한된 사업을 하던 졸업생들이 취업생들의 특수성에 입각한 전문상담기구로서

주최한 취업강좌, 尹鍾安(회계학) 경영대학원장과 金憲奎(교수학) 학생생활소장이 9월중순부터 한달여 동안 서울지역 30대대기업을 상대로 학교정보와 특별활동을 가진것 이외에는 지속적인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지않다.

이에따라 졸업생에서는 지난5일 학교측과 동창회에 "범동학인 취업대책위원회"구성을 제안하며 학내의 주체들이 취업문제에 대해 관심

급속도로 싹트려있게 전해지면서 현 정권의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처럼 사진은 찍은자 또는 사용한 자에 따라 엄청난 거리감을 갖고 있으며 필요한 때는 백마디의 구호, 글로 쓴 전단보다도 실질적인 힘을 가진 선전·선동의 매체로 그 효용성이 있다고 본다.

결국 사진은 인류진보의 각 단계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구조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담고 있는 표현 주제만이 아니라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끊임없는 고민이 뒤

따라야 된다. 따라서 각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선전하기 위해선 더 이상 문자매체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훨씬 많은 객관성과 진실성을 담은 영상언어로서의 사진을 우리는 구축해야 한다. 1980년 광주를 알리는 아버지의 초상을 든 소녀의 눈망울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깨달았듯이 사진은 새로운 사회로의 내디딤에 더없이 적합한 선전의 표현매체인 것이다.

김배달
(우리마당 사회사진연구회)

분교정책 철폐

제2캠프 총학생회 연합

"분교정책 철폐하고 학원지주 이룩하자"는 구호에 많은 제2캠프 학생들은 동의하고 있다.

각 학교의 전통과 특성은 달라도 우리학교를 비롯해 10여개교의 2캠프가 지방에 있으면서 분교로서는 동등한 상황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분교상황은 교육공간과 질의 저급함, 문화·복지 환경의 열악함으로 재학시절에 느껴지기도 하지만 졸업철과 취업철이 되어서 차별이

따라 또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전국 대학교 제2캠프 총학생회 연합(이하 2총련)은 이런 모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요구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위해 지난해 9월 전국대에서 2총련 건준위를 발족시켜내었다.

당시 경희대 총학생회장 이진우 군을 위원장으로 발족된 건준위는 2총련 건설 목적 및 배경에서 인구 분산, 지방문화 건설이란 미명아래 설립된 분교들은 인시방면적 성격 때문에 부족한 학교재정 보충과 서울 중심 학생운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분교가 아닌 2캠프스들의 질적 발전을 위해 첫째, 학교측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분교 정책 시정하도록 문교부에 의견을 수렴시킴과 동시에 사회여론화 시키고 둘째, 고립분산적 역할을 2총련으로 묶어내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그후 건준위는 2총련 건설이라는 과제와 당면 문제 해결에



◇2캠프총련(연합) 문화대동맹

이렇듯 취업은 교육의 일부분으로서 그 역할을 인정받아야하고 전 동국인의 관심과 배려속에 동국인의 취업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유기흥 記者)

제12대 총장선출을 위한 産품의 파바지에 와 있다. 세상의 어느 탄성이 값지고 귀하지 않은 것 있으리란 이번 우리의 그것은 특히 남다른 데 있는 지라 그 전통 또한 더욱 유별나다. 침체와 무기력의 절곡에서 멀어 일어나 학원을 울바로 세우려는 학원지주의 깃발을 세우려는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면서도 서럽고 고달픈 줄 모르고 달려와 이제 잠시 자리를 쉬고 있다. ▲는 것 보다 같 길이 많이 남은 길이기때, 그래도 가야 할 길이기때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길동무를 얻고자 한다. 때로는 지친 우리를 꾸짖고 타이머 손잡고 함께 갈 우리의 총장님을 얻고자 한다. 앞서의 누구처럼 잘난 사람 아니더라도 우리를 버리고 가지 않을 그런 총장님을 우리는 간절히 원한다. <碩>

우리 총장님

경우에는 다시 추진될 수 있는 불연차... 적어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이종진 세상의 대학총장감으로 자격이 있을 것 같다. 거기다가 만약의 경우 불미스러운 일로 방송출연(?)을 하게 될 때에도 시중 옷 값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여유까지 가지고 있다면 더욱 금상첨화라 하겠다. ▲지금 葉焄은

자기 총학선거가 마쳐진 현재 본격적 모순이 겹치는 의식을 공유화하고 추상적주장이 아니라 전문부서의 신실성을 통해 실질적인 2총련 건설의 불꽃을 점화해 가는 것이 당면과제로 다가온다.

(정희운 記者)

생활에 편의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함께 풍요를 나눕시다

두산그룹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우리 모두의 내일을 생각합니다.

항상 새롭게 도전하는 자세와 기필코 이루어 내는 집념. 그러나 이루어 내는 것보다 더 큰 것은 함께 나누어 갖는 기쁨입니다. 기간산업 분야에 기업을 집중해 나가고 소비재 분야에 기업의 신뢰를 자취하면서 생활을 더욱 풍족하게 하고 그 풍요를 함께 나누는 일. 두산그룹은 무역, 건설, 기계, 전자, 출판, 식품, 농축산 분야 등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풍요를 생각합니다.

인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 **두산그룹**